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발전방안 : 협동조합금융의 제안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정책실 및 중소서민금융 연구센터
연구위원
jbkim@kif.re.kr

1. 문제제기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두 말이 필요 없다. 2009년 기준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의 87.7%, 제조업 부가가치의 50.5%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중소기업은 346만 7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반면, 대기업은 49만 4천여개의 일자리를 감소시켰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전체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증가분의 52.7%를 중소기업이 기여하였다. 더구나 자본생산성과 노동소득분배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체계적으로 더 높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경제학박사,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2004
- Visiting Scholar, Stanford University Economics Department(2010-2011)
- 금융감독원 거시건전성위험분석 자문위원(2010)
- 기획재정부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자문위원(2010)
- 중소기업 신용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공저, 2012),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 시스템리스크를 감안한 추가자본금 추정에 관한 연구(공저, 2012),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대기업에 비하여 갖는 중소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고유성을 반영하는 금융모델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탓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금융모델을 살펴보고,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고 실험적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금융모델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2.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과 한계

국내외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은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은행에 의존하며 중소기업의 전체 자금조달 가운데 1/5 정도는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에 의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010년 12월말 기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30조원, 저축은행을 통한 중소기업대출은 2009년 6월말 기준 48.2조원이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2010년 3조1천억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6,200억원, 증권시장 전체적으로는 6.7%에 해당하는 3조7천억원 수준이다.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한국은행의 지원제도(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 총액한도대출), 중소기업청 대출, 신기보 보증, 모태펀드 등이 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용자하고 있으며, 2011년 3월말 기준 2조 500억원을 지원하였다.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재단)기구의 보증 잔액은 2010년 약 69.4조원 수준에 이른다.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통한 직접금융 지원은 약 1조3천억원 수준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를 통한 지원은 2010년 약 2조9천억원 수준에 이른다. 이외에도 지식경제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와, 16개의 광역지방자치 단체 역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는 간단히 표현하면 ‘정책금융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완을 받는 상업금융’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중소기업 금융은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고유의 금융모델이 없는 가운데 대기업과 차이가 없는 은행 중심의 상업금융모델’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금융지원 발전방안: 협동조합금융의 제안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대출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분류될 수 있다. 경쟁금융(competition banking)¹⁾과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이 그것이다. 경쟁금융은 자금시장에서 재무제표 성적이 우수한 순서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며, 관계금융은 재무제표 성적과는 다소 무관하게 은행과 중소기업간 개별적 관계에 따라 자금을 배분한다. 따라서 경쟁금융은 시장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입증된 재무적 능력에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며, 관계금융은 은행과의 지속적이거나 폭넓은 관계를 통해 확보된 개별적인 신뢰에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쟁금융은 주로 재무제표상의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반면, 관계금융은 중소기업의 업력, 업종, 은행과의 거래지속기간, CEO에 대한 개인정보 등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한다. 상대적으로 재무정보가 취약한 많은 중소기업은 경쟁금융보다 관계금융을 더 선호한다.

경쟁금융과 관계금융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갖는다. 충분한 재무적 정보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업종, CEO에 대한 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이 대출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경기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재무여건도 극심하게 변동할 것이므로 은행은 중소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선별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한편, 경쟁금융과 관계금융은 상호대체적인 측면을 가질 수도 있다. 은행 간 경쟁이 심하지 않을수록 또는 경기가 호황이고 은행대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넘칠수록 은행은 경쟁금융을 선호하고 관계금융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중소기업금융에서 관계금융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²⁾ 그러나 관계금융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임에 분명하지만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어디까지나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는 한계를 갖는다.

1) Boot and Thakor(2000)는 관계금융에 대비되는 금융현상을 거래금융(arm's length transaction banking)이라고 하였다. 이 거래금융은 정확히 본고에서 이용하는 개념인 경쟁금융과 같은 의미인데, 경쟁금융이 좀 더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본고는 거래금융 대신 경쟁금융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엄밀히 말하면, 관계금융도 거래방식의 차이일 뿐 은행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한 형태를 표현하는 개념이므로 '거래'금융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쟁금융'이 관계금융과의 차이를 더 뚜렷하게 드러낸다. 관계금융의 본질은 (차입을 둘러싼 중소기업간 경쟁을 중시하는 경쟁금융과는 달리) 은행과 중소기업간 1:1 거래관계를 통해 얻어진 사적인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 있다.

2) Boot and thakor(2000), Berger and Udell(1995, 2002), 김석진·김지영(2007) 등

즉, 경쟁금융이 주된 형태이고 관계금융은 재무정보 부족 및 경기변동 시기에 부분적으로 활용되어 경쟁금융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계금융의 편익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³⁾

그렇다면 중소기업에게 경쟁금융과 관계금융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본질적인 특성⁴⁾을 적절히 고려한 금융모형은 없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하여 본고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고 실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협동조합금융(cooperative banking)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경쟁금융과 관계금융이 은행 우위의 금융모델이라면, 협동조합금융은 중소기업과 은행이 우위를 다투지 않고 이루어지는 금융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모델에서 중소기업은 다양한 고객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뿐이지만, 협동조합금융에서는 중소기업이 바로 적합한 고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협동조합금융은 은행이 직접 협동조합방식의 관계망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경쟁금융과 관계금융에서는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기업이고 은행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협동조합금융에서는 은행이 직접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참가하거나 협동조합에 간접적으로 관계함으로써 은행이 기업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취득한다. 즉, 은행 그 자신이 협동조합 멤버로서 동일한 협동조합 멤버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혹은 협동조합과의 계약 혹은 여타 관계를 통하여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조합원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금융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중소기업과 은행 간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비대칭성문제는 대기업과 은행 간의 관계보다 중소기업과 은행 간의 관계에서 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경쟁금융과 관계금융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하지만, 협동조합금융에서는 은행이 협동조합의 일원이 되거나 협동조합과의 관계를 통하여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며 이는 정보비대칭성 완화에 도움이 된다.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개별기업의 협동조합 출자금 및 협동조합 일원으로서 활동사항에 대한 정보가 중소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때

3) 김석진·김지영(2007)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관계금융의 편익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은행과 기업간 거래 지속이 오히려 차입금리를 높이는 효과를 야기하여 관계금융에 의한 비용이 존재한다.

4) 상품시장에서 경쟁력이 아직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으며, 자금시장에서는 교섭력이 낮다. 이로 인해 경쟁력 있는 재무정보가 부족하고 정보비대칭성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 중소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금융이 보다 중소기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소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자금배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협동조합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금융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정책금융은 협동조합금융의 초석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금융이 직접 협동조합금융 조직체계를 구축하거나 혹은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금융은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자금배분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장하는 등 시장성 상업금융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하지만 협동조합금융에서 정책금융은 기존 금융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금융 조직체계 구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서 협동조합금융 조직체계는 중소기업간 협동조합 혹은 중소기업 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금융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용보장을 하더라도 그 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용보증은 그 자체가 대출자금이기보다는 개별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장해줌으로써 은행의 대출을 유인하는 제도이다. 현행 신용보증은 개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협동조합금융체계에서는 개별 기업대신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공여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적 보증프로그램이 지원하고 다수 중소기업의 공동 출자 혹은 다수 중소기업과 은행의 공동출자를 통해 협동조합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 은행과 관련해서는 덴마크의 협동조합은행 메르쿠르(Merkur Cooperative Bank)와 네덜란드의 라보뱅크(Rabobank)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협동조합금융은 은행과 중소기업간 정보비대칭성을 크게 완화하여 위험프리미엄을 낮추고 중소기업자금조달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협동조합을 통하여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방식으로 결합되어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중소기업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이는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금시장에서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을 지양하여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Berger, A. and G. Udell(1995), "Relationship lending and lines of credit in small firm finance," Journal of Business 68, 351-381.
- Berger, A. and G. Udell(2002), "Small business credit availability and relationship lending :the importance of bank organizational structure," Economic Journal 112, 32-53.
- Rabobank Group Annual Report 2011
- 김석진·김지영(2007), "관계금융이 자금이용성과 차입금리에 미치는 영향," 증권학회지 36권, 1-32
- 김지봉·이석호(2012), 『중소기업 신용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의 역할 비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 김현대·하종란·차형석(2012), 『협동조합, 참 좋다』, 푸른지식출판사